

황인준·신범수 신에 배터리 호흡 좋았는데...야속한 비



오키나와
TIGERS
김여울 기자
캠핑을 가다

한신 타이거스와 연습경기
폭우에 1이닝만에 우천 취소
긱은 날씨에 캠핑 일정 차질
마운드 경쟁·컨디션 관리 비상

비가 야속하게 느껴졌던 황인준과 신범수 '신에 배터리'였다.
KIA 타이거즈는 19일 일본 오키나와 기노자 구장에서 한신 타이거스와 연습경기에 나섰다. 경기 전 KIA 배터리에 눈길이 쏠렸다.
이날 KIA는 선발 황인준과 함께 포수 신범수로 배터리를 구성했다.
황인준에게는 이번 스프링캠프 연습 경기 두 번째 등판이자 첫 선발이었다.
신범수도 캠프 처음으로 스타팅으로 나서 한신을 상대하게 됐다.
김민식이 19일 대만 캠프로 이동하면서 4년 차 신범수가 오키나와 캠프 안방마님이 됐고, 이날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선배들은 경기 전 훈련시간에 "범수 긴장했다"며 분주하게 경기장을 오가는 신범수를 놀리기도 했다.
"긴장 안 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짓던 신범수의 가슴 떨리는 첫 선발 경기는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자 KIA와 한신은 예정됐던 오후 1시부터 10분 정도

앞당겨 경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양 팀이 한 번씩 공격을 한 뒤 하늘이 심상치 않아졌다.
2회초에 들어가려는 순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내 빗줄기가 굵어졌다.
오후 1시 5분 경기가 중단되면서 선수들은 황급히 덕아웃으로 철수했다. 그리고 경기장이 비에 젖으면서 결국 없던 경기가 됐다.
우천 취소가 누구보다 아쉬운 사람은 황인준과 신범수였다.
황인준은 이날이 아쉽다.
이닝을 늘리면서 페이스를 끌어올려야 하는 시점이지만 잇단 비에 투수들의 등판이 밀려났다.
"짧은 마운드"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한 경기, 한 이닝이 간절하기도 하다.
황인준은 "이번이 시합 두 번째인데 1이닝밖에 하지 못했다. 이닝을 늘려가야 하는데 아쉽다"며 집을 꾸렸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안방 싸움에서 확실히 어필하려고 했던 신범수의 아쉬움은 더 컸다.
특히 이날 황인준의 공도 좋았고, 호흡이 적절했었던 만큼 장비를 챙기는 신범수의 얼굴에는 진한 아쉬움이 묻어났다.
"오늘 (공이 좋아서) 5이닝 무실점 페이스였다"며 웃은 신범수는 "뭔가 사인이 딱딱 맞기도 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내일 경기 잘하겠다"고 언급했다.
KIA 입장에서도 하늘이 원망스럽다.
실전을 통해 자리 경쟁에 속도를 붙여야 하는데 비가 KIA의 발목을 잡고 있다.
14일 야쿠르트전 강우 콜드에 이어 16일 두산전 그리고 19일 한신전까지 비로 차질을 빚으면서 시즌 구상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한편 KIA는 20일 요미우리와의 경기를 치른 뒤 21일 휴식일을 보낸다.
다음 연습경기는 25일 요코하마를 상대로 진행된다.
/wool@kwangju.co.kr



19일 일본 오키나와 기노자 구장에서 열린 한신 타이거스와 연습경기가 우천 취소된 후 선발 출전한 투수 황인준과 포수 신범수가 서로 격려하고 있다.
/오키나와=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범호



김민식

'허벅지 부상' 이범호 중도 귀국

포수 김민식 대만 캠프로
야수 박찬호 오키나와로

KIA 타이거즈의 오키나와 캠프 명단에 변화가 생겼다.
'최고참' 이범호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귀국하고, 포수 김민식은 대만 캠프로 이동했다. 대만에서 기회를 노렸던 박찬호는 오키나와로 건너왔다. 이범호가 KIA 캠프의 세 번째 중도 귀국자가 됐다.

이범호는 지난 18일 히로시마 도요카프와의 연습경기를 앞두고 수비 훈련을 하는 도중 왼쪽 햄스트링에 통증을 느꼈다. 고질적인 햄스트링 부상을 안고 있는 이범호는 검진 결과 허벅지 근육이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범호는 귀국 후 정밀 검진을 받은 뒤 재활 일정을 잡게 된다. 이에 따라 김세현을 시작으로 윤석민, 이범호까지 세 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캠프를 완주하지 못하게 됐다.
팀 타선의 중심 타자이자 캠프에서 솔선수범하면서 후배들을 이끌었던 만큼 이범호의 부재는

KIA에는 큰 아쉬움이다.
김민식도 오키나와 캠프 명단에서 빠졌다.
공수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인 김민식은 19일 대만 캠프로 건너가 심기일전하게 됐다. 대신 내야수 박찬호가 오키나와 캠프에서 복귀 테스트를 받는다.
박찬호는 지난해 10월 제대한 뒤 합평 찰린저스 필드에서 몸 만들기엔 주력했다. 박찬호의 가세로 KIA의 내야 백업 경쟁에 새 바람이 불게 됐다.
박찬호는 "2015년 이후 4년 만에 스프링캠프에 참가하는 것 같다"며 "제대 후 타격 훈련에 신경 많이 썼다. 신인의 자세로 돌아가서 초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성현 '시즌 5승 목표' 첫 단추 펜다



내일부터 LPGA 타이일랜드 출전

어느새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3년 차에 접어든 박성현(26)이 태국에서 2019시즌을 시작한다.
박성현은 오는 21일부터 나올간 태국 춘부리 시암 컨트리 클럽 파타야 올드 코스(파72·6천576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혼다 LPGA 타이일랜드(총상금 160만 달러)에 출전한다.
이번 시즌 LPGA 투어 네 번째 대회지만, 박성현에게는 첫 대회다. 박성현은 지난 세 번의 대회를 건너뛰고 동계 훈련에 매진했다.
LPGA 투어 입성 후 지난 2년간 박성현은 많은 것을 이뤘다.
데뷔 첫 시즌에 2승, 지난해 3승을 거뒀고 그중에서 2승은 메이저 대회에서 따냈다. 신인상과 올해의 선수상을 거머쥐고 세계랭킹 1위에도 올라섰다.
더없이 좋은 성적이지만 지난 시즌만 놓고 보면 아쉬움도 남는다.
우승을 포함해 7번 톱 10에 드는 동안 7번 킷 탈락의 쓴맛도 보며 기록을 나타냈다. 우승 경쟁을 벌이다 최종 라운드에서 흔들린 브리티시 여자오픈처럼 한 대회 내에서도 냉랭함을 오가곤 했다.

시즌 3승이나 거둔 선수에겐 어울리지 않지만 나름대로 '2년 차 징크스'라면 징크스일 수도 있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최근 국내에서 열린 후원 조인식에서 기자들을 만난 박성현은 "올해 메이저 대회를 포함해 시즌 5승을 목표로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엔 박성현 외에도 여러 한국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유소연(29)도 이 대회를 시즌 첫 대회로 삼았다. 지난 시즌 꾸준한 활약을 보이며 1승을 추가한 유소연은 지난 시즌보다 한 달 늦게 시즌을 연다.
개막전에서 예열을 마친 전인지(25)도 본격적으로 시즌을 시작한다. 양희영(30)은 이 대회에서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나 우승한 강자다. 좋은 기억이 있는 무대에서 '정글다리 3승'에 도전한다.
개막전 우승자인 지은희(33)와 호주여자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고진영(24)을 비롯해 김세영(26), 김효주(24), 이미향(25), 최운정(29)도 일제히 나선다.
지난주 데뷔전을 치른 '핫시스' 이정은(23)은 출전하지 않지만 '이정은'인 선배 이정은(31)이 출전한다.
/연합뉴스

김시우 PGA 통산 상금 100억 돌파

최경주·위창수 이어 국내 3위

김시우(24)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상금 100억원을 돌파했다.
김시우는 지난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끝난 PGA 투어 제네시스 오픈에서 단독 3위에 올랐다.
이 대회 상금 50만 3200 달러(약 5억6000만원)를 받은 김시우는 PGA 투어에서 통산 상금 935만 8077 달러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05억 3000만원 정도로 김시우는 이번 대회를 통해 통산 상금 100억원을 넘겼다.
한국 국적의 선수 가운데 PGA 투어에서 최다 상금을 기록한 선수는 최경주(49)로 3231만4886 달러를 벌여 PGA 투어 전체를 통틀어 25위에 올라 있다. 이는 한국 돈으로 약 364억원 정도가 된다.
한국 국적 선수로 최경주 다음은 위창수(47)의 16만6924 달러(113억원)다.
교포 선수로는 케빈 나(미국)가 2820만2426 달러, 대니 리(뉴질랜드)가 188만7918 달러, 제임스 한(미국)이 940만 8030 달러 등을 기록 중이다.
PGA 투어 전체를 통틀어 통산 상금 1위는 타이거



우즈(미국)로 1억 1568만5445 달러를 벌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선수 중에서는 박인비(31)가 1457만4960 달러로 한국 선수 중 1위, 전체로는 6위에 올라 있다.
여자 선수 중에 통산 상금 100억원을 돌파한 한국 국적의 선수는 박인비 외에 박세리(42)가 1258만 3713 달러, 최나연(32)이 1072만9305 달러, 유소연(29)이 1000만 2830 달러, 김인경(31) 925만 5902 달러 등 5명이다.
/연합뉴스